

배구 21세 이하 남녀 대표팀 세계선수권 동반 출격



강화 훈련 중인 여자 U-21 대표팀 선수들.



석진욱 남자 U-21 대표팀 감독의 지시를 듣는 선수들.

〈대한배구협회 제공〉

남자 U-21 대표팀, 8월 21~31일 중국 장먼서 ‘4강 진출’ 목표
여자 U-21 대표팀, 8월 7~17일 인도네시아…1차 목표는 ‘16강’

남자 배구 성인 국가대표팀이 11년 만에 국제배구연맹(FIVB)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서는 가운데 21세 이하(U-21) 남녀 대표팀도 나란히 세계 정상에 도전한다.
왕년의 ‘배구 도사’ 석진욱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1 대표팀은 다음 달 21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장먼에서 열리는 U-21 세계선수권에 출전한다.
또 정진 목포여상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여자 U-21 대표팀도 8월 7일부터 17일까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개최되는 U-21 세계선수권에 참가한다.
석진욱 감독이 사령탑을 맡은 남자 U-21 팀은 성인 대표팀에 진출했던 공격수 이우진(전 이탈리아 문차)이 21일 합류한 가운데 지난 달 17일부터 한 달 넘게 담금질을 해왔다.
하지만 라인-루르 세계하계대학경기대회(U대회)에 참가 중인 대학 새내기 거포 윤경(인하대)이 28일 합류해야 소집 멤버 12명의 완전체가 된다.

U-21 팀에는 프로 무대에서 뛰는 아웃사이드 히터 윤하준(한국전력)과 윤서진(KB손해보험), 세터 김관우(대한항공)도 소집돼 있다. 석진욱 감독은 이번 U-21 세계선수권에서 ‘4강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4개 참가국이 여섯 팀씩 4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벌이며, 한국은 B조에서 폴란드, 이란,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카자흐스탄과 네 장의 16강행 진출 티켓을 다툰다.
석진욱 감독은 “우리 조에선 폴란드와 이란이 강한데, 4강 진출 목표를 이루려면 높은 순위를 받아야 D조의 이탈리아, 프랑스와 만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윤경 선수가 28일 합류한 후 훈련 기간이

17일 정도로 짧지만,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우리나라는 8월 21일 캐나다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른다.
여자 U-21 대표팀에도 성인 대표팀 소속으로 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서 뛰었던 미들블로커 김세빈과 세터 김다은(이상 한국도로공사), 아웃사이드 히터 이주아(GS칼텍스)가 가세했다.
우리나라는 남자팀과 마찬가지로 B조 조별리그에서 미국, 도미니카공화국, 크로아티아, 멕시코, 중국과 네 장의 16강 출전권을 다툰다.
지난 3일 진천선수촌에서 모여 강화 훈련을 해왔

고, 15일 VNL을 마친 김세빈, 이주아, 김다은이 합류하면서 조직력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여자 U-21팀은 성인 대표팀의 언니들이 VNL에서 최하위(18위)로 ‘강등’ 수모를 당했던 만큼 16강 진출을 1차 목표로 정하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6강 판권을 통과한다면 D조의 브라질, 일본 등 강팀들과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
세계 무대 도전에 나선 남녀 U-21 대표팀이 승전보를 전하며 최근 남녀 성인 대표팀의 국제대회 성적 부진 아쉬움을 대신 털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박신자컵 개막전부터 한일전…BNK, 후지쓰와 맞대결

부산서 8월 30일 개막전 시작으로 9월 7일까지 진행

한국과 일본 리그 챔피언이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컵대회인 박신자컵 첫 경기에서 격돌한다.
WKBL은 다음달 30일부터 9월 7일까지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리는 2025 BNK 금융 박신자컵 조 편성과 경기 일정을 23일 발표했다.
2023년부터 해외팀들도 참가하며 국제대회로 열리는 박신자컵은 올해는 유럽 클럽들이 처음으로

로 가세해 10개 구단이 경쟁한다.
2개 조로 나눠 진행되는 조별리그의 A조에는 2024-2025시즌 WKBL 챔피언인 부산 BNK를 필두로 아산 우리은행, 용인 삼성생명, 일본 W리그 통합 우승팀이자 박신자컵 디펜딩 챔피언인 후지쓰 레드웨이브, 사라고사(스페인)가 편성됐다.
B조에서는 청주 KB와 인천 신한은행, 부천 하나은행, 덴소 아이리스(일본), DVTK 훈테름(헝

가리)이 경쟁한다.
특히 8월 30일 오후 2시 열리는 개막전에선 지난 시즌 한일 챔피언인 BNK와 후지쓰가 맞붙는다.
WKBL 신임 감독들의 데뷔전도 눈길을 끈다.
신한은행의 최은아 감독은 8월 31일 오후 2시 덴소와의 경기, 하나은행 지휘봉을 새롭게 잡은 이상범 감독은 같은 날 오후 7시 KB와의 경기로 데뷔한다. 팀당 4경기씩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2위 팀이 9월 6일 4강전에 나서며, 9월 7일 결승전과 3·4위전이 이어진다.
/연합뉴스

화정남초 노이한 , 대통령기전국장사씨름대회 우승

박유찬은 아쉬운 은메달

화정남초가 제62회 대통령기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했다.
화정남초 노이한(5년)이 23일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역사급(70kg 이하) 결승에서 김해 진여초 이민혁을 2-1로 누르고 대회 정상에 올랐다.
노이한은 3판 2선승제로 진행된 결승전에서 팽팽한 기싸움 끝에 잡치기로 첫판을 가져왔다. 노이한은 두 번째 판에서는 이민혁의 들배지기에 무릎을 꿇었지만, 세 번째 판에서 똑같은 기술로 들어온 상대를 막아낸 뒤 똑같이 발다리로 승리를 거두면서 역사급 우승을 확정했다.
지난 3월 ‘제39회 전국사·도대항장사씨름대회’용사급(60kg이하)에서 우승을 이뤘던 노이한은 이번에는 역사급을 석권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장사급(120kg 이하) 결승에서는 박유찬(6년)이 경남 북성초 허길영과 맞대결을 벌였다. 박유찬은 발다리 기술에 성공하면서 첫판을 가져왔지만 허길영의 들배지기에 연달아 승리를 내



화정남초 박유찬(왼쪽에서 두 번째)과 노이한(네 번째)가 제62회 대통령기전국장사씨름대회에 은메달과 금메달을 차지한 뒤 동료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주면서 은메달을 기록했다.
지난 5월 전국소년체전에서 역사급 1위에 오르며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광주에 금메달을 안겨줬던 박유찬은 장사급으로 체급을 올린 이번 대회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화정남초 이상범 감독은 “노이한은 정말 성실하고 씨름 밖에 모르는 선수다. 순발력을 바탕으로

좋은 경기를 하면서 올해 두 체급을 석권했다. 박유찬은 올 시즌 가장 좋은 성적을 내면서 팀을 이끌어가는 기능이다. 신체적인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은 선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대회 용장급(55kg)에서는 서산초 김상엽(6년)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대한체육회 홍보대사에 마법사 최현우 위촉

“한국 스포츠에 매직을”

마술사 최현우가 대한체육회 홍보 대사로 활동한다.
대한체육회(회장 유성민)는 지난 22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3층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최현우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대한체육회 홍보대사는 ▲스포츠 선진화(비인기종목 저변 확대, 스포츠 인권 보호 등) 활동 ▲대한체육회 공식 SNS를 통한 소통 ▲대한체육회 주요행사 및 운영사업 참여 및 재능기부 ▲지역 및 회원종목단체 초청 강의를 통한 스포츠 참여 분위기 조성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최현우 홍보대사는 특히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대회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재능나눔을 통해 생활체육의 가치를 알리는데 역할을 할 예정이다.
최현우는 “마술과 스포츠가 닮아 있는 부분이 많



은 만큼, 대한체육회와 스포츠 세계에 마법 같은 영감을 더하고 더 많은 국민이 스포츠를 통해 삶의 에너지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미국올림픽위원회, 성전환 선수 여성 경기 출전 금지

미국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USOPC)가 성전환(트랜스젠더) 선수의 자국 내 대회 여성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AP통신은 23일 “USOPC가 홈페이지에서 정책 변경을 알렸으며, 수영과 육상 등 각 종목 연맹에 해당 지침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남성을 여성 스포츠에서 배제하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 행정명령에는 성전환 선수가 여성 경기에 출전할 경우 해당 종목 단체에 연방 자금 지원을 전면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한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미국 내 성전환 선수의 출전을 강제로 금

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USOPC는 미국 연방 의회 헌장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연방 차원의 행정명령을 의무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IOC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 관련 세부 규정을 각 종목 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세계육상연맹은 성별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제재 규정을 도입한 단체이며, 세계수영연맹도 남성으로 사춘기를 경험한 선수가 여성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제축구연맹(FIFA) 역시 여성 경기 출전 자격 기준에 테스토스테론 수치 기준 도입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97회 정기연주회
‘Brilliant Colours’
일시 : 2025-07-25(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III
‘Flute’
일시 : 2025-08-22(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41